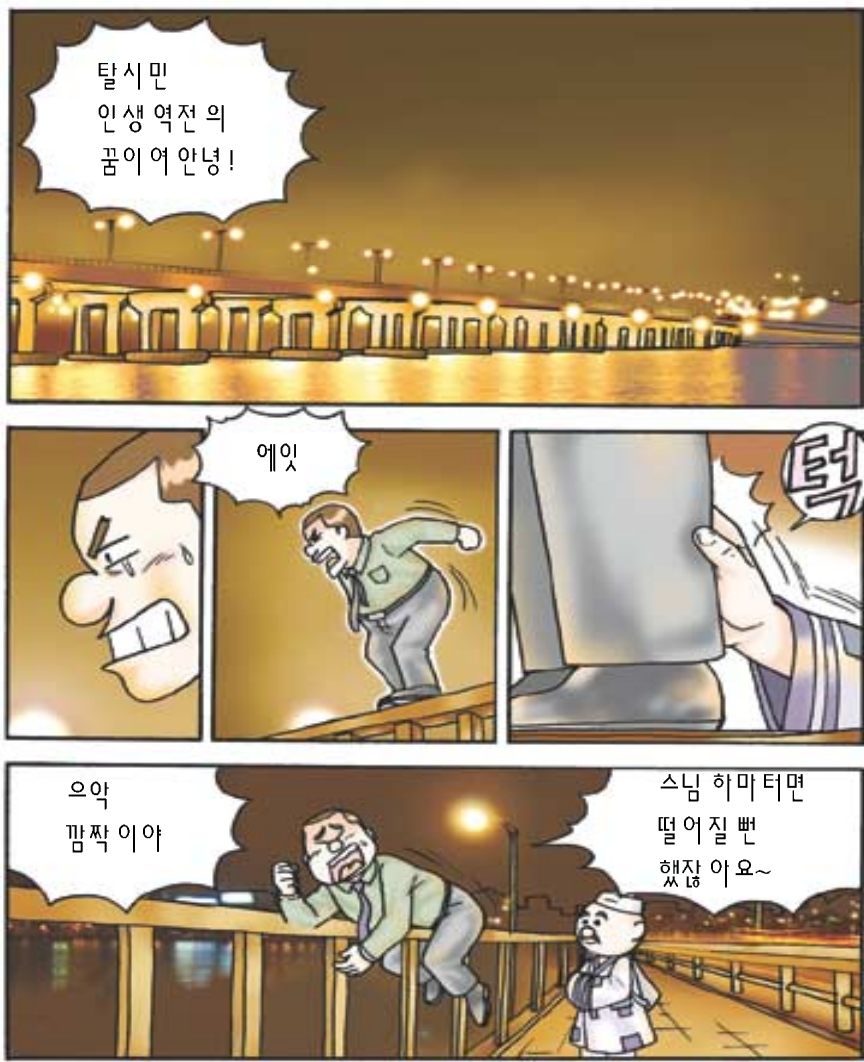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2화)

“작은 것을 소홀히 말라”

출처: 장아함경 제11: 선경경: 1-72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이렇게 들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한달

잊어서는 안될 일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선재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 싶게 벌써 잊고 있는 스스로에게 놀란다. 망각의 강이라는 '레테'에는 근처도 기본 적이 없는데 정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잊고 만다. 새로운 정보를 담기 위해서 망각이라는 것이 작동한다는 하지만 이걸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남의 일에 그토록 오래 신경을 쓴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고 집중하는 것을 흔히 '삼매'라고 한다. 수행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삼매는 다시 '심일경성(心一境性)'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마음을 대상과 하나가 되도록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분별론>에서도 참선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제4선을 구성하는 요소는 평등한 마음[捨]과 심일경성이다'라고 하고 <대념처경>에서는 다시 "이것을 바른 선정[正定]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다.

선재는 선가에서 흔히 '화두일념'으로 정진하라는 말을 들었다. 화두와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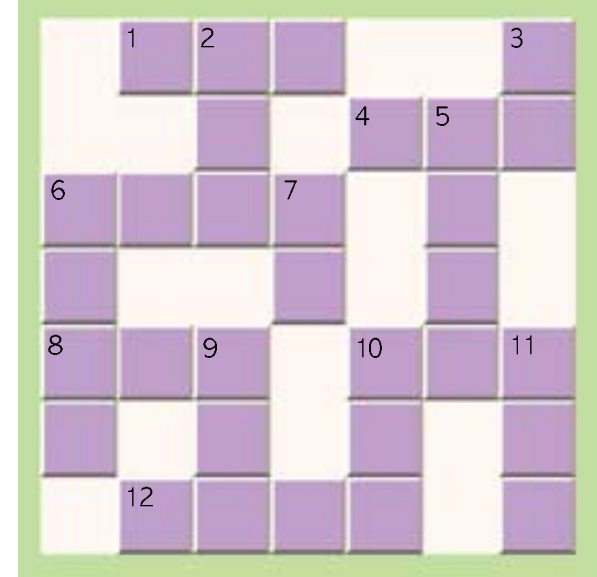
일경성이 되도록 하라는 말이 될 터이니 수행에서 마음을 다잡고 있는 일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늘 공통된 일인 모양이다.

마음이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것이 망각일 것이다. 선재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마음에서 떠나보내던 국화꽃 한 송이를 보며 가슴 아파했던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 가족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의 눈물도 선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결국 망각이란 선재 아닌 것들을 더 이상 선재와 관계 맺도록 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이다.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에도 화두를 들고 있으라는 선가의 말이나 12계·18계 등이 세계의 전부라고 하는 부파불교의 설명이 사실은 망각을 경계시키려는 의도를 달리 표현한 말이라고 선재는 생각한다.

한 달을 눈물로 보냈을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선재가 잊지 않는 일, 그것은 바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곳을 대비시키는 일이다.

■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합실)



교리퍼즐

1. 사방(四方)과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 동방지국천왕, 서방광목천왕, 남방증장천왕, 북방다문천왕. 4. 모든 것이 무아라고 깨닫는 관법. 5. 정심관의 하나. 6. 후한서(後漢書)에 있는 고사. 개가 사면장(殺狀)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견함사사(犬銜殺狀)라고도 함. 8. 팔정도의 하나로 올바른 노력이라는 뜻. 10. 불상에 향수를 뿌려 목욕시키는 제. 부처님 오신날 봉행되는 법회는 관불법회라 함. 12. 바위 위에 가부좌하고 왼손을 무릎 위에 놓고, 오른손에 푸른 나뭇가지를 잡은 관음상으로 33관음의 한분.

< 413호 「교리퍼즐」 정답 >



2. 북한산국립공원의 도봉산 선인봉 남쪽에 위치한 사찰. 무문관으로 유명함. 3. 다섯 종류의 관법(法)을 의미. 진관, 청정관, 광대지혜관, 비관, 지관을 말하는 것. 5. 산스크리트어인 Amie의 음역으로 영원하신 부처님이라는 뜻. 대승불교의 중요한 부처님으로 무량수불이라고도 불림. 6. 수행승이 먹어도 되는 97가지 고기라는 뜻. 나를 위해 죽이지 않는 고기. 전에 벌써 죽은 고기 등. 7. 중국에서 불해 서쪽에 있는 천축국의 의미로 인도도를 말함. 9. 신라제 24대 왕으로 흥륜사와 황룡사를 창건. 유적으로는 영토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4개의 순수비 가운데 국보 3호 북한산 순수비와 33호 창녕 순수비가 유명하다. 10.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의미. 11. 의복, 음식 등 물질적인 재물을 타인에게 베푸는 것.

삼환양초는 4월 초파일 모든 법당에서 특별하게 쓰입니다.

15년 역사의 불교양초 제조사 삼환양초가 제안해 하는 특별한 양초

식물성 양초

- 1 식물성양초 원기둥 - 지름 7.4cm x 29cm
- 2 식물성양초 돈타레 - 지름 5.6cm x 27cm
- 3 식물성양초 밀대 - 지름 4.6cm x 26cm
- 4 식물성 6각초(氣) - 지름 7.5cm x 30cm
- 5 식물성 복(福)초 - 지름 6cm x 24cm
- 6 식물성 쌍대 - 지름 3.4cm x 22.5cm
- 7 식물성 3" x 6" - 지름 7.3cm x 14.5cm
- 8 식물성 3" - 지름 7.3cm x 10cm

- 1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 2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 3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 4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 5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 6 밀대양초 지름 4.6cm x 25cm (백색, 핑크, 청색, 살색, 적색, 연두, 전사지-연화, 반야심경, 무지개)
- 7 글대(쌍대)양초 지름 3.4cm x 22.5cm 백색,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 8 돈타레 양초 지름 5.6cm x 27cm 백색, 적색, 청색, 핑크, 노랑, 전사지, 연화, 호랑이, 용, 반야심경

- 1 1.8cm x 12.5cm 등초 소(1봉 20)
- 2 2cm x 12.5cm 등초 대(1봉)
- 3 연화 3호
- 4 바람막이 소
- 5 바람막이 중
- 6 연화 2호
- 7 락초

삼환양초공업사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정사조롱 및 손잡이대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 불제대원 고주전구, 인제전구(등용)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6배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켈렌 효과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초

- ▶ 정사조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합합니다. (견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귀입문의 (032) 582-6235~6 귀입문의 (02) 2266-2634 · 2263-2638
 귀입문의 (031) 986-0277-8 (011) 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결포동 389-43